

관광가이드 연수

포교저변 확대
조계종, 28~29일 경주

조계종포교원(임장 성타)은 28~29일 불국사 및 경주 일원에서 관광가이드 연수회를 개최한다.

관광가이드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연수회는 '우리 문화를 바로 알자'라는 주

제 '한국불교문화의 특색' (성타스님) '불교문화사 개요' (진철승) 한국종교연구원 전 부회장) '사원건축, 불교 세계관' (한정갑) 문화답사 전문가) 등의 강의와 불국사 석굴암 향토사지 경주박물관 현장답사로 진행된다.

北 문화재 DB화

인터넷 사이트도
南 한민족문화연구소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소장 이재락)가 11일 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받고 북한문화재 관련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 연구소는 북한의 금강산 국제그룹(회장 박경운)을 통해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조선

민속박물관, 조선미술박물관 등의 문화재자료를 제공받은 후 남한 소프트웨어를 이용, 북한 문화재자료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또 가상 박물관과 인터넷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련 CD롬도 제작·판매할 계획이다. 총 3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정보화 관련분야에 있어 최초의 남북협력사업이다.



스승공경 제자사망

영성여중(교장 안은자)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퇴직교사와 현직교사, 재학생 3대를 이어주는 스승과 제자 사랑의 노래부르기 행사를 펼쳤다.

영성여중(교장 안은자)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퇴직교사와 현직교사, 재학생 3대를 이어주는 스승과 제자 사랑의 노래부르기 행사를 펼쳤다.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퇴직교사, 현직교사, 재학생으로 구성된 4팀과 현직교사와 제자로 이루어진 3팀의 노래공연에 이어 극공연, 어머니합창 등이 진행됐다.

뉴스 & 뉴스

중앙승가대 개교 19주년

중앙승가대학교 개교 19주년 승가 한마당이 19일부터 20일까지 중앙승가대 교정에서 펼쳐졌다. '열매맺는 숲속의 자유로움'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화합의 한마당을 통해 승가대 발전이 곧 한국불교의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쉬지 않고 정진하고자 하는 승가인의 의지를 담았다.

소적새마을, 장애체육대전 참가

소적새마을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16일 원주기독교병원직업재활원과 함께 체육행사를 가졌다. 종교를 뛰어넘어서 서로 장애를 겪고 있는 친구로서 삶의 용기를 북돋아 준 이날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피구, 이어달리기, 축구, 줄다리기 등의 경기로 진행됐다.

한편 소적새마을은 19~22일 경기 상남사에서 펼쳐지는 '장애인 체육대전'에 강원도 대표로 마을 가족인 한준희(16·정신지체 2급·원주청원학교 중등부1년)군을 필두로 기와제지리 멀리뛰기 종목에 출전시킬 계획이다.

'웃음과 사랑이 있는 집'

경남 사천 모흥사(주지 백산) 사회 복지법인 산소원은 20일 웃음과 사랑이 있는 집 기공식을 갖는다. 사천시 송포동 산 145번지에 건립되는 웃음과 사랑이 있는 집은 무료양로원, 요양원, 무료어린이집이 들어설 계획이다. 2백40평에 지상3층 규모로 12명 완공예정인 무료양로원은 70여명의 무의탁 독거노인을 입주할 수 있으며 2천년까지 요양원과 무료어린이집 불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보살의 미소' 발언 물의

10일 열린 김대통령의 국민과의 TV 대화와 관련, 한나라당 대구시지부가 11일 김대통령을 비판하는 논평의 제목을 '보살의 미소'로 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논평은 "김대통령의 유유자적한 모습이 국민들이 겪는 좌절과 분노 고통과는 거리가 멀었다"면서 김대통령의 웃음을 보살의 미소에 비유, 오해할 소지를 남겼다. 물의를 빚자 한나라당 대구시지부는 즉각 '대통령의 미소'로 수정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대구 달성에 '스님바위'

대구시 달성군에 '스님바위'가 탄생했다. 달성군문화원은 유가년 비슬산 대견사지 인근 바위의 이름을 공모, 12일 '스님바위'로 명칭을 확정했다. 4월20~30일까지 공모했으며 '스님바위'를 명명할 사람은 대구시 서구 김영수씨 등 4명.

거리상담 나섰다

매달 1회 가출청소년 등 선도...유해환경 어머니감시단 추진

어머니날인 8일 밤 11시 인천 월미도,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아래 화려한 옷차림의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몰려 있다. 스님이 다가 대화할 참해보지만 '웬 스님?' 하는 듯 고개를 돌릴 뿐 대꾸가 없다. 오라실에는 18세도 채 되지 않아 보이는 여학생들이 서툰 화제로 엇됨을 감춘채 모여앉아 있다.

불국사·석굴암 '19억보험'

문화재급 건물 최고액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이 국내 주요문화재급 건물로는 최고의 보험계약액인 총 보험금액 1백91억 2천만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동부화재는 6일 불국사와 석굴암 1천5백60평에 있는 건물과 불상 탕화 등에 발생하는 화재손해에 대해 2001년 4월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보상금액은 불국사 1백40여억원, 석굴암 50여억원 등 총 1백91억2천만원이다. 이에따라 불국사는 3년간 1억2천

원의 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보상금액은 안전소실률을 경우 최고급의 건축자재와 최고 숙련 기술자를 동원해 새로 짓는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험대상에서 석굴암 다보탑 등 건물 외부에 있는 국보급 문화재의 청운교 백운교 등 주변문화재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군 선거 입후보자 해인골프장 반대서약

해인총림대책위 대구환경운동연합

해인총림대책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해인골프장 반대서약을 체결했다. 해인총림대책위 대구환경운동연합 해인골프장 반대서약을 체결했다. 해인총림대책위 대구환경운동연합 해인골프장 반대서약을 체결했다.

년 선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초·중·고 학생의 어머니를 10인 이상씩의 조직으로 구성해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감시단의 역할 및 활동, 유해환경 실태와 지도방안, 청소년 심리와 이탈지도 방안, 성교육 등을 교육해 현장실습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6월 3일까지. (032)761-4855/7942(친구사이) <김지연 기자>

교적이며, 하나님의 계시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인은 그럴 수 없다

목타 소리

김중근 <취재1부 기자> 이예대대 방철호목사는 같은 책에 기고한 '나는 이래서 사찰에서 강연했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종교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 사찰간 대화는 불가능하고 동성갈등과 계층갈등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며 "인간사회에 있는 아집과 갈등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영산재 세계구전유산으로

유네스코 '구전유산' 추진...각국 연구관 파견

유네스코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54차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구전무형문화유산' 시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는 75년부터 발효된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세계유산 등록제도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등 주로 유형문화유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 특히 우리나라는 93년 무형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지침서를 각 회원국에 권고했는가 하면 이번 집행이사회에는 학예연구관을 파견,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세계구전무형문화유산제도의 도입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에서 세계구전무형문화유산의 선정기준과 심사위원을 선정, 구체적 추진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상은 매 2년마다 세계보존적 가치를 갖고 있는 구전무형문화유산을 선정,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경주남산등 3곳 세계유산 신청키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경주남산을 비롯하여 전북고창과 화순 지역 등 3곳을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록신청대상으로 최종 결정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18건의 문화유산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주남산등 문화유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유네스코는 금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제155차 집행이

인천청교련 '청소년 컴퓨터'

매달 1회 가출청소년 등 선도...유해환경 어머니감시단 추진

어머니날인 8일 밤 11시 인천 월미도,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아래 화려한 옷차림의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몰려 있다. 스님이 다가 대화할 참해보지만 '웬 스님?' 하는 듯 고개를 돌릴 뿐 대꾸가 없다. 오라실에는 18세도 채 되지 않아 보이는 여학생들이 서툰 화제로 엇됨을 감춘채 모여앉아 있다.

불국사·석굴암 '19억보험'

문화재급 건물 최고액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이 국내 주요문화재급 건물로는 최고의 보험계약액인 총 보험금액 1백91억 2천만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동부화재는 6일 불국사와 석굴암 1천5백60평에 있는 건물과 불상 탕화 등에 발생하는 화재손해에 대해 2001년 4월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보상금액은 불국사 1백40여억원, 석굴암 50여억원 등 총 1백91억2천만원이다. 이에따라 불국사는 3년간 1억2천

부산 실천불교운동본부 창립

인권·통일등 7개분과

부산 실천불교운동본부(본부장 안승운)가 13일 국제신문사 소강당에서 집관식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행사는 집관식 강연(불교 그리고 통일) 정비과 목관화 초대전 등으로 마련됐다. 교계 사회운동단체로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창립된 실천불교운동본부는 인권 문화 통일을 비롯 7개분과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쥬(紐새)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언더의 태중로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흰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뇌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준듯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조(創造)시킵니다.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다. 즉 내분비계가 무너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동치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으로부터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 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흡족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의보감에도 향비(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제품문의: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Table with 2 columns: Symptom (증상) and Effect (효과). Lists 17 symptoms related to menstrual health and skin conditions, such as 'heavy menstruation', 'irregular menstruation', 'acne', etc., with corresponding checkmarks in parentheses.

저는 38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등을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향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더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재가 항상 고된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시는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